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좋은 공공건축 01

#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좋은 공공건축 01

#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펴낸이** 김대익  
**엮은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은이** 임유경, 김수빈, 김지현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자우편** npbc@auri.re.kr  
**홈페이지** <http://www.auri.re.k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http://www.npbc.or.kr/>)

**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www.credada.com](http://www.credada.com)

**비매품**

ISBN 979-11-5659-155-9  
979-11-5659-154-2 (세트)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uri.re.kr/>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npbc.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공공건축 01

#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 모두 함께 만드는 ‘좋은 공공건축’을 위하여

건축은 우리가 사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가치를 높입니다.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 메마른 일상에 휴식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공건축’이란 어떤 것일까요? 공공건축은 모두를 위한 건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건축 사업이 사용자에게 귀기울이기보다 정해진 예산과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유사 사업의 외형만 모방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좋은 공공건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좋은 공공건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표적 공공건축인 ‘공공도서관’으로,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례는 결과물 중심의 분석보다는 초기의 기획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과 운영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아 향후 공공건축 사업의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부디 이번 ‘좋은 공공건축’ 시리즈가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건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의 출발점도 도달점도 사람이다”

- 프랭크 게리 Frank Gehry

“건축은 첫째로 누군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케빈 로쉬 Kevin Roche

<b>I 공공도서관의 변화</b>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b>11</b>
<b>II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b>	
왜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일까?	<b>17</b>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업 개요	<b>19</b>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어떤 곳일까?	<b>20</b>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b>26</b>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의 도서관’으로	<b>36</b>
<b>III 공공도서관의 미래</b>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어떻게 만들까?	<b>42</b>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도서관’ 만들기	<b>43</b>
‘도시의 거실’이자 ‘인류 지식의 저장고’로 나아가길!	<b>44</b>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주요 프로그램	<b>46</b>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용 안내	<b>47</b>



좋은 공공건축 01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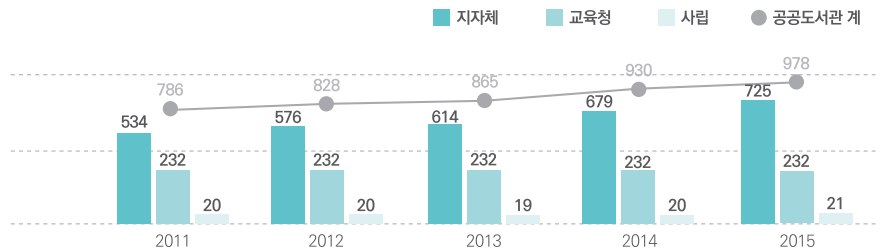




공공도서관이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도서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중심에 서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도서관=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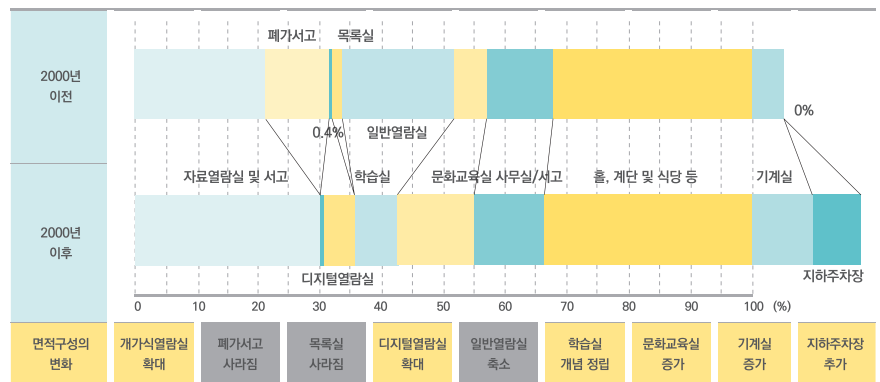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공공도서관은 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자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개별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 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만큼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최근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계층별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한 공간이 되었다.



|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한편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2000년 전후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폐가서고와 목록실이 사라지면서 개가식 열람실과 디지털 열람실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열람실은 축소된 반면 교육, 문화강좌 등을 위한 공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면적비율 변화 (출처: 고재민 외(2015), 「도서관 소요공간에 따른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공공도서관이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도서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중심에 서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필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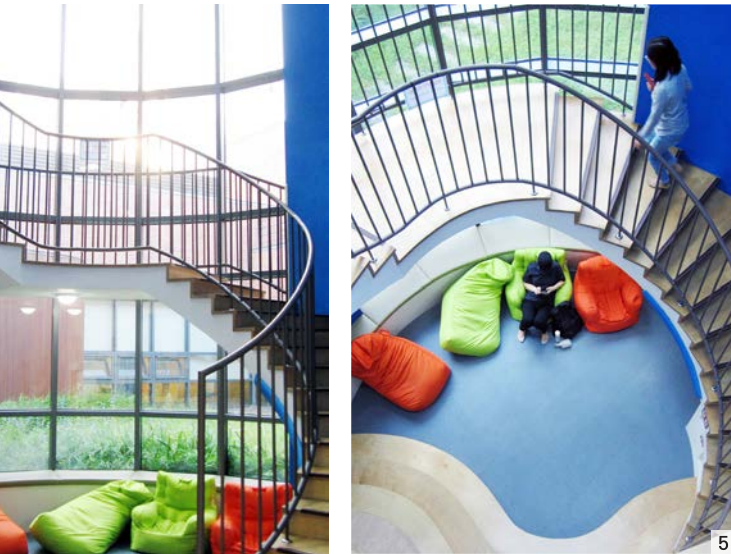


©서울시 중랑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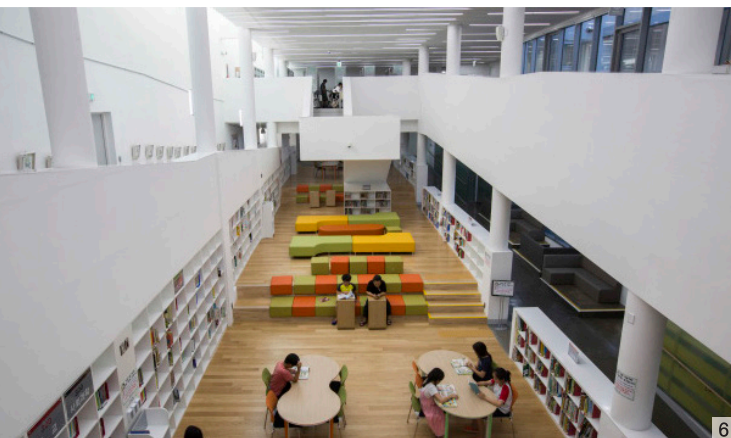


©김묘정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유도 늘었다. 과거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학업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울산시 북구청

#### 1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2017

13m 높이, 5만여 장서를 갖춘 대형 서가에 휴식과 만남, 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문화체험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 2 서울시 중랑구 '겸재 작은도서관' 2017

중랑천 제방 위 산책로에 컨테이너 박스로 세워진 작은도서관이다. 국내외 여행도서와 함께 겸재 정선을 비롯한 조선시대 대표화가들의 회화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랑구 내 다른 도서관의 책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로 장서를 다양화했다.

#### 3 서울시 노원구 '한내 지혜의 숲' 2017

아파트 숲 사이 근린공원의 공터가 독서, 문화여가, 아동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를 결합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각종 공예수업을 진행한다.

#### 4 경기도 파주시 '가람도서관' 2013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특화 도서관으로, 클래식 전용 공연장과 함께 각종 음반과 오디오플레이어, 음악관련 서적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이 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5 서울시 도봉구 '기적의 도서관' 2015

민관이 협력하여 건립한 어린이도서관이다.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6 울산시 북구 '매곡도서관' 2017

문화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열람실의 서가를 연결하고 각 실을 경계 없이 통합하여 가족 단위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좋은 공공건축 01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다.  
사업 기획단계에서 예산 확보,  
시설 조성 and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총괄계획가가  
발주기관과 건축가, 주민을 연결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 왜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일까?

### 선정 배경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기획, 조성, 운영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은 주어진 예산과 규모, 일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 활용, 합리적인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사업 초기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수요조사, 인근 시설과의 중복성이나 차별화방안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건축물 준공 무렵 운영자의 의견에 따라 시설을 재시공·재배치하거나 이용자의 요구로 추가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도서관 역시 발주기관인 기획자와 운영자, 이용자가 모두 달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각 주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다. 사업 기획단계에서 예산 확보, 시설 조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총괄계획가가 발주기관과 건축가, 주민을 연결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주거지역의 노후 건축물과 마을길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과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

“골목길을 둘러싸고 있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을 고쳐 기존 마을공간과 주민생활에 융합하는 공간구조를 갖는 도서관 등 공공건축을 만들고자 한 발주자 및 주민조직의 기획의도와 설계발주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서관의 지향점을 설정, 발주자-주민-설계자의 노력이 합치하여 훌륭한 성과를 낳은 공공건축의 모범”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심사평’ 중

“기존 마을의 풍경과 어울리면서 주민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훌륭히 담은 사례로, 공공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새롭게 제시”

‘2016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심사평’ 중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업 개요

사업명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조성사업
용도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시행기관	서울시 은평구청
담당부서	건축과 / 문화관광과 / 교육복지과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23 (구산동 17-37)
대지면적	1,572.90㎡
건축면적	860.64㎡
연면적	2,550.25㎡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 높이 14.70m
총사업비	65억 원 (토지·건물 매입비 제외)
구조	철근콘크리트 / 조적조
주요시설	북카페, 음악도서관, 음악연습실, 생태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만화도서관, 시청각자료실, 문화강좌실, 열람실, 갤러리, 동화구연실, 어린이독서토론실, 공유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룸
설계	(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2013.7~2014.3)
시공	(주)금강주택 (2014.4~2015.6)
감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2014.4~2015.6)
조성기간	2012.9~2015.6



©황규백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어떤 곳일까?

### 시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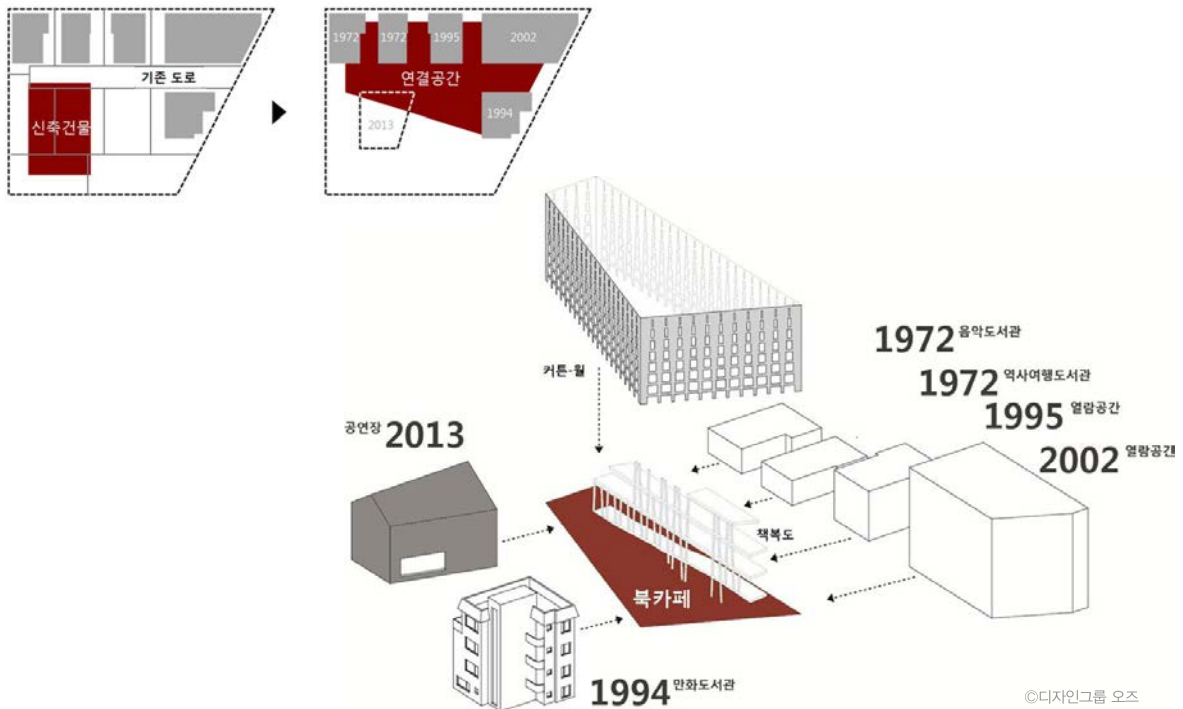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기존 주택 8개 동, 1개의 막다른 도로를 포함한 11개 필지에 조성되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구조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물 3개 동과 구도로를 적극 활용하여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기존 주택의 55개 방들은 일부 방을 합쳐 동아리활동실, 토론방, 음악녹음실, 만화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 하층이 큰 서가 및 서고는 새롭게 증축하면서 많은 실들을 연결하는 ‘책복도’로 완성되었다.

기존 도서관의 엄숙한 분위기를 상상하고 방문한다면 이곳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곳곳에 숨어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도심 주거지의 평범한 주택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이 담긴 일상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일상생활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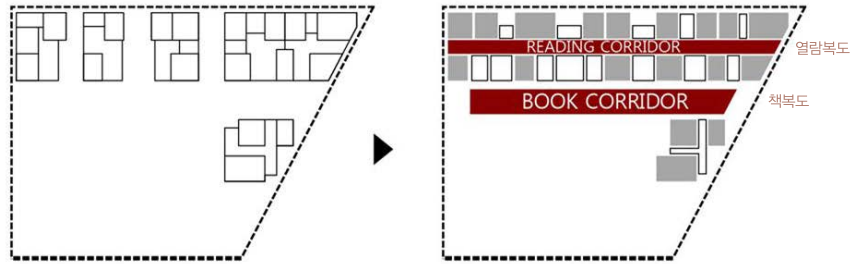
### 하나. 마을의 기억을 담은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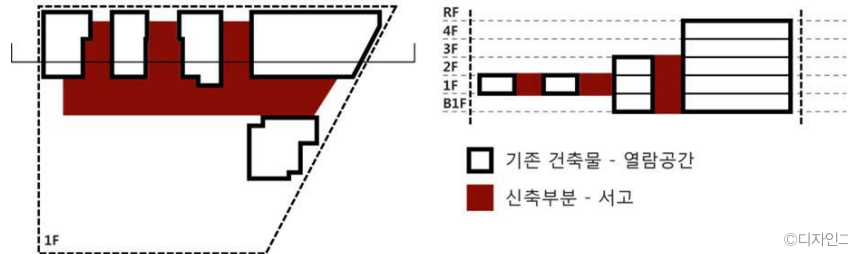
©디자인그룹 오즈

## 둘.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공간을 활용

- 기존 주택의 55개 방을 열람실, 토론방, 동아리활동실 등으로 활용



- 서가 및 서고는 하층을 고려하여 '책복도' 형태로 새롭게 증축



©디자인그룹 오즈

- 기존 주택의 외벽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



©황규백

## 시설 특징

### 셋. 층별 테마 도서관 운영

#### 1층

구산동도서관마을 진입과 동시에 펼쳐지는 1층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규모 행사와 문화강좌 등이 진행되며, 음악을 감상하거나 자신의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다.



©황규백

####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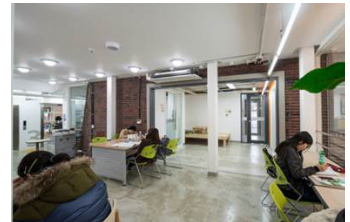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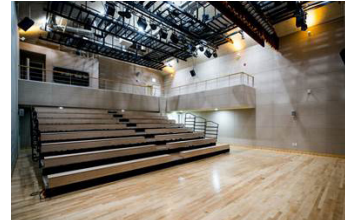
어린이자료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마음껏 뒹굴면서 놀이처럼 책을 즐길 수 있다. 2~4층에 걸쳐 있는 만화자료실 '만화의 숲'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각 층별로 어린이만화, 일반만화, 순정만화로 구분해 놓았다.



©황규백

### 3층

청소년을 위한 전용 자료실, 그룹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룸, 공연과 영화상영,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힐링캠프'가 있다. 독서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황규백

### 4층

마을의 역사와 정보를 담은 마을자료실이 있다. 기존 주택의 방을 활용한 소규모 열람실들은 학생, 일반인 등 도서관 이용객이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황규백

## 시설 특징

5층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공간과 회의실 등이 있다.



©황규백

‘도서관’ 안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코흘리개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서관마을에서 만나고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어도 눈치 보지 않고,  
 엄마들이 도서관에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깔깔거리며 만화책도 보고, 악기도 연주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신나고 행복한 도서관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안내문’ 중-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조성 과정



2014

2015

## 설 계 단 계

▼  
총괄  
계획  
가  
지정

## 주민의견 제안 및 공동체 활성화

- 주민협의체 구축 (2013.9~2015.6)
- 도서관 계획 시 필요공간 및 프로그램 제안
- 도서관마을 관련 주민소모임 개최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설계·공사 발주 및 주민활동 지원

- 설계용역 계약 (2013.7)
- 설계 관리 (2013.7~2014.3)
- 총괄계획가 지정 (2013.9)
- 주제별 의견 조율
- 주민협의체 구축 및 활동 지원

- 공사발주 및 계약 (2014.3)
- 주민활동사업 지원 (2015.1~12)
- 공사 관리 (2014.4~2015.6)
-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 설계 및 디자인 감리

- 기본 및 실시 설계 (2013.7~11)
- 주민설명회 개최
- 기존건물 자료구축
- 주제별 협의 진행
- 설계 변경 및 사후관리 (2013.11~2014.3)
- 리모델링 범위 변경

- 서가 및 인테리어 디자인 참여

## 공사 및 감리

- 착공 (2014.4)
- 공사 변경
- 기존건축물 구조보강
- 지반보강공사 추가
- 준공 (2015.6)

## 운 영 단 계

▼  
운  
영  
자  
선  
정▼  
개  
관

## 운영 참여

- 도서관 운영 참여 (2015.6~)
- 운영 참여조직 구성
- 운영계획 수립

## 운영자 선정

-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2015.6)

## 운영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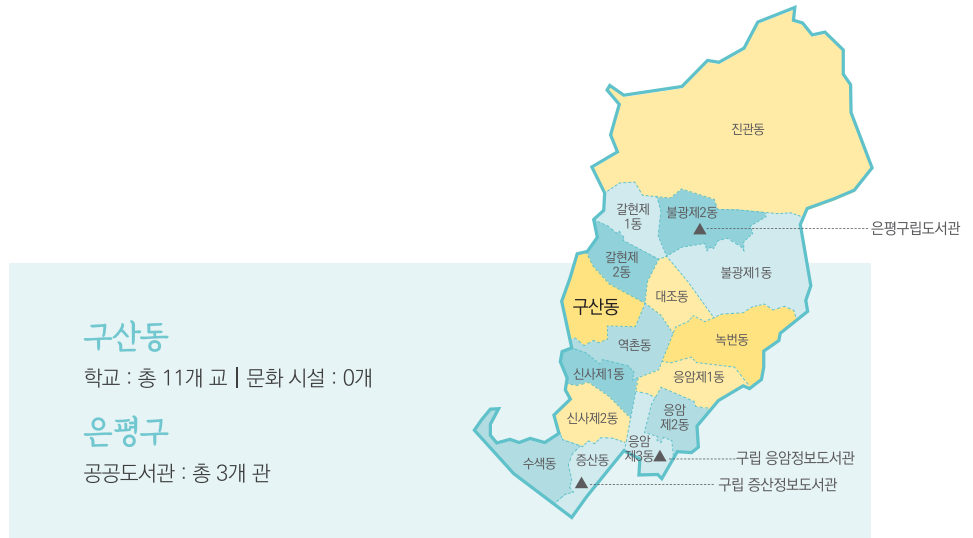
- 운영자 확정 (2015.6)
- 개관 준비 (2015.6~11)
- 개관 (2015.11)

## 기획단계 : 민관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준비하다

### 조성 과정

2015년까지만 해도 은평구의 공공도서관 수는 세 곳에 불과했다. 특히 구산동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1개 학교가 있었음에도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시작은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들을 주축으로 ‘아이들은 책이 있는 놀이터에서 즐기고, 어른들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의 문화사랑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도서관 설립을 준비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11일 만에 2,008명의 주민이 서명함으로써 도서관 건립에 동참했다.



| 2015년 당시 시설 현황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은평구청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구산동 17-56 외 필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당초 신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주민들은 기존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초기 주민참여예산제로 19억을 확보하였으나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개별로 조성하기로 했던 만화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를 통합하여 건립하기로 합의, 총 35억 원을 확보했다. 이후 국비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65억 원의 사업비(토지 및 건물 매입비 제외)가 소요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통해 설계 이전의 준비 또한 철저히 했다. 주민요구 파악, 지역자원 조사, 콘텐츠 기획, 도서관 활성화방안 마련 등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기본계획 연구용역 - 사회적기업 (주)뚜꺼비하우징**

- ① 주민 욕구조사, 주요 교통수단 및 접근, 운영 관련 협력단체 조사
- ② 콘텐츠 기획 및 활성화방안
- ③ 설계용역 범위 및 내용 제안
- ④ 도서관 개관 추진일정, 운영 모델 비교, 아이템별 프로그램 진행방안, 기타 사업추진 및 도서관운영 관련 내용 제안
- ⑤ 사례조사 : 은평구 내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주제별 도서관(역사도서관, 생태환경 과학도서관 등), 예술도서관(아르코예술정보관, 뉴욕도서관, 성미산마을극장)

한편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주민참여 위원, 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27인을 확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 주민대표를 제외한 건축전문가 위주로 7인이 선정되었다. 이후 은평구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분야별로 적정인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설계 단계: 마을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다

### 조성 과정

처음 은평구는 기존 건물 5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공영장 1개소를 증축하는 과제를 설계 쪽에 제시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도서관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아이디어는 참신했지만 규모와 높이가 서로 다른 건물들을 연결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주거용인 주택과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구조하중과 각종 시스템의 적용 등 기준이 달라 서가와 서고 같이 특수한 공간은 증축을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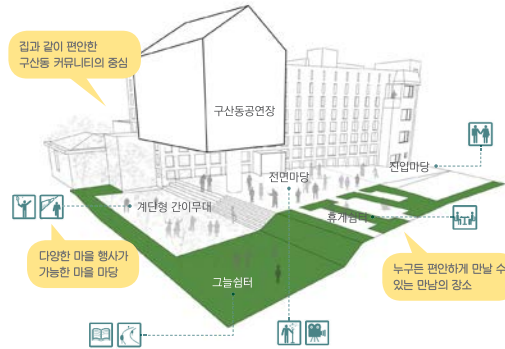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사업부지 안의 기존 도로를 복가페, 책복도, 열람복도로 새롭게 해석하여 건물 내부에서 마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재창조한 설계안이 선정되었다.



설계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선정한 총괄계획가가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사항에 맞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업했다. 설계의 주요단계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진행상황과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적용할 만한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을 구체화하여 설계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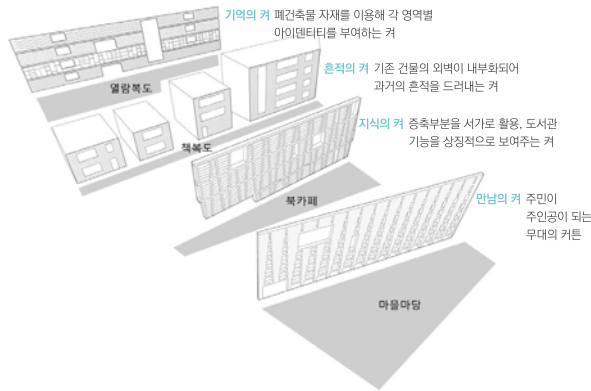
마을의 구조와 기존 건물을 살린 설계과정은 쉽지 않았다.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실측과 안전진단부터 해야 하는 등 업무량은 예산을 초과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예산 부족으로 지하주차장이 지상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던 외부 광장이 사라지기도 했다.

[ 계획설계 의도 ] - (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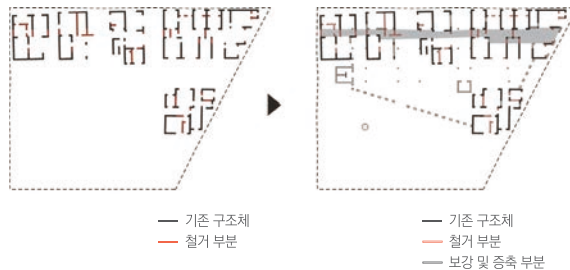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도서관 내부의 작은 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을의 기억이 쌓이는 도서관

이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주택과 골목 등 이미 구축된 마을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마을의 골목에서 책을 고르고 주택처럼 편안한 방에서 책을 읽으며 마을의 기억이 축적되는 마을박물관이 되고자 하였다.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높은 밀도의 주택가에 마을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내부는 작은 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공사 단계 : ‘리모델링+증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 조성 과정

건립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조적식 주택은 구조를 보강했지만 공사 중 심각한 수직 균열이 발생한 단독주택 1개 동은 결국 철거했다. 또한 공사 중 연약지반이 확인되어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비도 상승했다. 그 결과 계획 대비 공사 기간은 53일, 공사비는 약 15% 증가했다.

공사장 여건도 좋지 않았다. 사업부지가 주거 밀집지역인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했다. 좁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무엇보다 기존 주택들의 리모델링을 위해 일부 계단실과 내력벽 등을 철거할 때 구조물이 붕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며,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철저히 했다.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일들로 설계 및 공사 계획이 변경된 것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주 1회 시공자 및 감리자, 총괄계획가, 은평구청 담당자, 필요할 경우 설계자까지 모여 공정회의를 열었다. 덕분에 문제점을 파악해 즉시 대응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13. 6. 15



2015. 7. 14

| 공사 전·후 달라진 마을 풍경 |

## 운영 단계 :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우뚝 서다

은평구청은 준공 전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운영업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도서관의 기획 및 설계 과정을 함께한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선정, 3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준공 이후 개관을 준비하면서 은평구는 도서관축제를 개최하고 도서관 중심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썼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청소년’과 ‘만화’를 특화한 도서관이다. 개관한 지 2년여,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의 비전

“책으로 누리고 정보로 어우러지는 열린 공동체”

## 사업추진 단계별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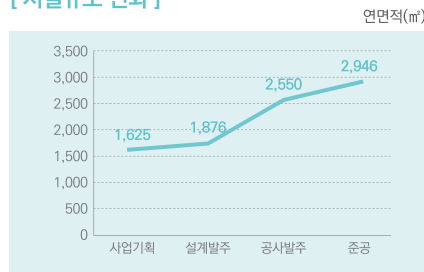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사업의 규모, 예산, 기간 등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무엇보다 시설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 폭이 컸다. 사업초기 기존 건물 8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노후건물의 구조결함과 소규모 공간들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었다. 고민 끝에 기존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계획 대비 연면적은 1,321㎡, 약 2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예산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과 지반보강공사가 추가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다.

## 조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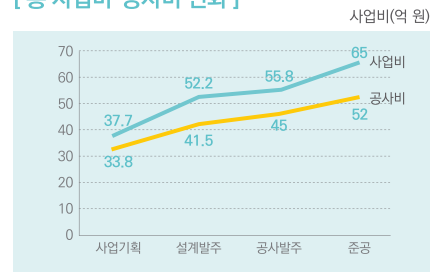
### [ 설계 및 공사 시 주요 변경사항 ]

구분	사업기획 시 (2012.9)	설계 발주 시 (2013.5)	공사 발주 시 (2014.2)	준공 시 (2015.6)
규모	연면적 1,625㎡ 중축 410㎡ 리모델링 1,215㎡	1,876㎡ 신축 730㎡ 리모델링 1,146㎡	2,550㎡ 기존 건물 3개 동 리모델링 및 수평중축, 연면적 674㎡ 증가	2,946㎡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 396㎡ 증가
예산				
사업비	37.68억 원	52.21억 원	55.8억 원	65억 원
공사비	33.77억 원	41.45억 원	45억 원	약 52억 원
설계비	1.68억 원	1.65억 원	-	2.2억 원
기간				
사업기간	2012.9~2014.12	2012.9~2014.12	2012.9~2015.3	2012.9~2015.6
설계		2013.7~2013.11	2013.7~2014.3	
공사			2014.4~2015.4	2014.4~2015.6

### [ 시설규모 변화 ]



### [ 총 사업비·공사비 변화 ]



### [ 설계 및 공사 시 단계별 변경내용 ]

<p><b>1차 설계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예산 확보 불가에 따른 기존 계획안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삭제 등</li> </ul> </li> </ul>	<p><b>1차 공사 변경 ( 2.22억 원 ▲ 30일 ▲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장을 이설 및 지하구조물 철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 후 기존 건물 내부 철거범위 증가</li> </ul> </li> <li>• 기존 건물 안정 위한 지반보강공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물 3개 동 안전성 확보 후 흙막이공사 진행</li> </ul> </li> </ul>
<p><b>2차 설계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모델링 공사범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물 4개 동의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착공 후 균열로 인한 붕괴 우려로 1개 동 철거, 기존 건물 3개 동 리모델링으로 설계 변경</li> </ul> </li> </ul>	<p><b>2차 공사 변경 ( 2.45억 원 ▲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물 보수공사 물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물 3개 동 균열 보수 및 추가 구조보강공사</li> </ul> </li> </ul>
	<p><b>3차 공사 변경 ( 2.43억 원 ▲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및 자료실 마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및 공간성능 개선을 위한 방음 보강, 칸막이벽 설치, 천장 마감 등</li> </ul> </li> </ul>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의 도서관’으로

### 만족도조사 결과 (2016.11)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기획 초기단계부터 주민수요와 지역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간을 계획하였다. 개관 1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운영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5~27일, 약 2주에 걸쳐 주말과 주중 각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시간대를 나누어 실시하였고, 설문문항은 이용실태 및 시설만족도에 대한 질의로 구성하였다.

운영자 대상 시설만족도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0일 현장을 방문하여 사서 및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가운데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특성요약		연령대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용자	주말	50	22	9	3	11	2	3
	주중	50	11	18	9	7	4	1
	남성	39	9	15	3	7	3	2
	여성	61	24	12	9	11	3	2
	합계	100						
운영자	남성	4	0	0	2	0	1	1
	여성	11	0	2	1	4	4	0
	합계	15						

| 조사대상 특성 및 기초통계 | (명)

### ●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는 10~20대의 비율이 전체의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40대의 비중이 30%였다.

10대의 경우 주중(11명)보다 주말(22명)의 이용비율이 높은 반면, 20대는 주말(9명)보다 주중(18명)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7%는 도보로 접근했으며 이동시간이 평균 11분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주이용자는 인근주민임을 알 수 있다.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방문하는 비율은 81%, 주 2회 이상은 59%로 고정적인 이용자층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서관을 학습공간으로 활용(54%)하는 10대와 20대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과 상관성이 있는 듯하다.

이용자들은 ‘건축상 수상 배경’으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 점(48%), 타도서관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23%), 기획·설계·운영 과정의 주민의견 반영(21%)을 꼽았다. 또한 타도서관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50%)와 시설 및 공간의 우수성(36%)을 높이 평가했으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시설 및 공간 확충(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축상 수상배경	기존주택 리모델링	48
	주민의견 반영	21
	다양한 프로그램	3
	자유로운 분위기	23
	도서구성의 다양성	5
우수 사항	시설 및 공간	36
	주민의견 반영	10
	프로그램	2
	자유로운 분위기	50
	장서 구성	2
개선 사항	시설 및 공간	43
	주민의견 반영	2
	프로그램	9
	자유로운 분위기	18
	장서 구성	28

| 이용자 만족도조사 중 '항목별 응답률' | (%)

### ● 운영자 만족도조사 및 인터뷰 결과

공공도서관의 운영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시설조성 단계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상 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를 진행하고 준공 이후에야 운영자를 선정하다 보니 업무공간과 동선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어렵다.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도 계획단계에서 서가 및 열람실 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운영자의 업무 및 서비스 공간은 최적화되지 못했다. 단독주택 리모델링 특성상 서가 및 열람 공간이 여러 개의 소규모 공간으로 나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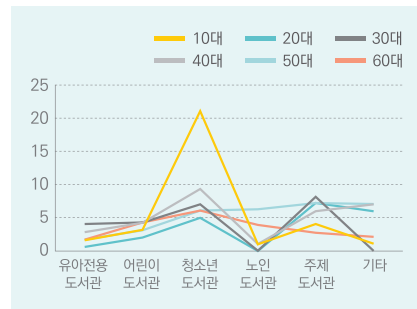
어 규모 대비 필요인력이 증가하였으나 계획단계에서 이를 예측하고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운영자 만족도조사 결과, 건물 외관에 대한 만족도(3.2점)는 보통인 반면 근무공간(1.9점)과 휴식장소(1.3점)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운영자들은 도서관을 계획할 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주민제안으로 아이들을 위한 요리실습실을 만들었으나 도서관 안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고 급·배수와 배기 등 위생설비가 과도한 공간을 차지하여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협소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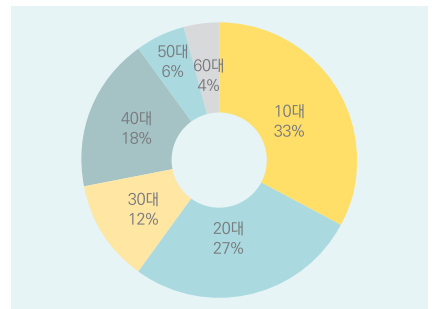


### ● 사전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분석결과 부합성 비교

**이용자 연령대** : 사전에 도서관 테마에 대한 선호도조사에서 10대의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았다. 이를 반영하여 청소년 힐링캠프, 청소년자료실, 만화자료실 등 10대를 위한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하였다. 그 결과 10대의 이용률(33%)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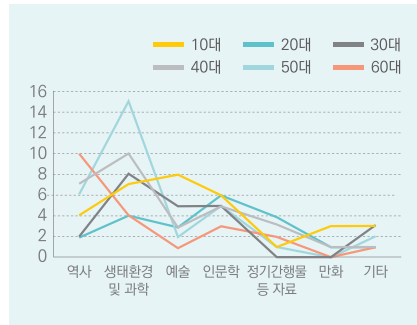
□ 사전조사 중 '테마도서관 선호도' | (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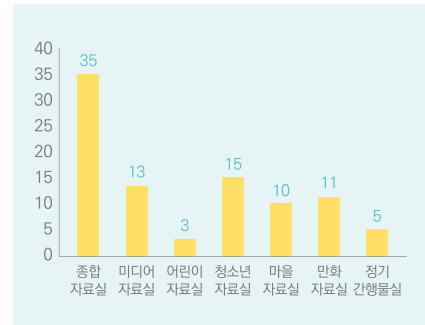
□ 만족도조사 중 '이용자 연령대' | (2016.11)

## 만족도조사 결과 (2016.11)

**주요 이용공간** : 사전조사를 통해 생태환경 및 과학, 역사,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종합자료실 외에도 미디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마을자료실(역사), 만화자료실 등을 조성하였고, 현재 다양한 열람실이 고루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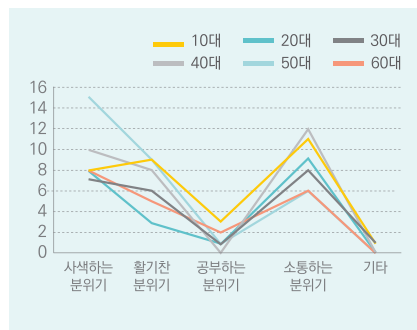


| 사전조사 중 '도서콘텐츠 선호도' | (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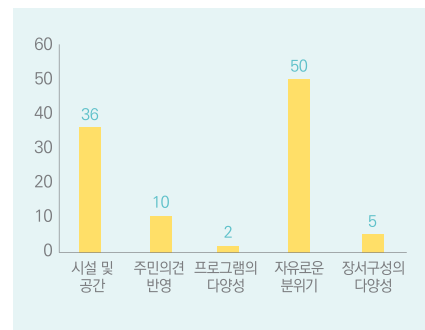


| 만족도조사 중 '주요 이용공간' | (2016.11) \*복수응답

**타 도서관 대비 좋은 점** : 사전조사에서 '도서관마을'의 이미지에 대해 전 연령층이 이웃, 친구와 만나 소통하는 공간을 상상하였다. 기존의 엄숙한 열람실 분위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결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타 도서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좋은 점으로 꼽았다.



| 사전조사 중 '도서관마을 이미지' | (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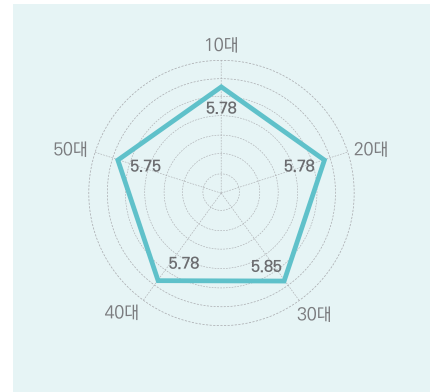


| 만족도조사 중 '타 도서관 대비 좋은 점' | (2016.11) \*복수응답

**연령별 프로그램실 만족도** : 사전조사 결과 전 연령층에서 북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원했으며, 10대의 경우 동아리방, 컴퓨터실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요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열람실 외에도 음악감상실, 동아리활동실, 공연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실에 대한 만족도가 전 연령층에서 평균 5.8점(7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전조사 중 '서비스공간 선호도' | (2013.1)



| 만족도조사 중 '프로그램실 만족도' | (2016.11) 7점 만점

## “문화복합체로 확장된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상 제시”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용자들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운영·관리까지 도서관 조성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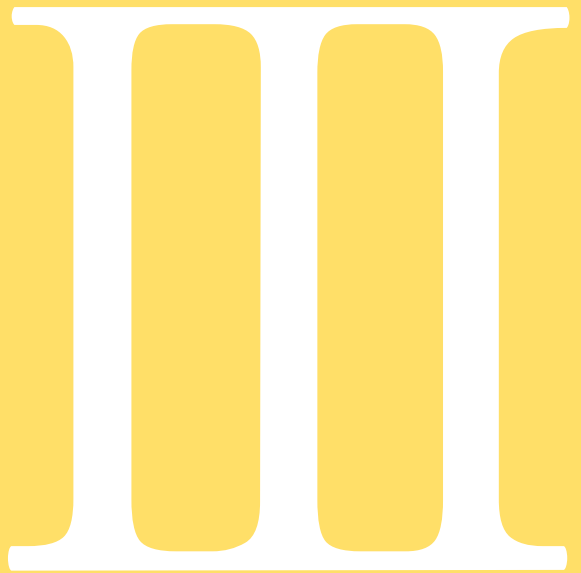
반면 운영자의 시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서관이 책을 빌려보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만큼 운영자의 업무도 더 복잡해지고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조성 과정에서 운영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복합체로서 도서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계획과 전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이 더해지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공공건축 01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미래



##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어떻게 만들까?

### 이 정 수

서울도서관 관장

####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도서관은 책을 중심으로 정보가 모이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정보와 지식에 있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반한다.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의 선별, 정보매개자로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은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가 고도화됨에 따라 누구나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도서관 복합화와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한 소견

도서관과 함께 운영될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과 사용자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복합시설 계획 시 도서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열람실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장서 확보가 관건이다.

주거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의 이점이 있지만 장서나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재 도서관법상 최소 설립기준(연면적 33㎡, 열람석 6석, 장서 1천 권 이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공공도서관 건립 시 필수 고려사항은?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지나치면서 인지하고 필요할 때 찾아오기 쉬운 곳이 가장 좋다. 공간계획에서는 엄격하게 분리되는 열람실이 아니라 개방형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칸막이 열람실이 점차 사라지면서 자유롭게 책을 접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존서고, 운영자 공간, 서비스 동선과 같은 세부공간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못했다. 개관 이후 3년 정도가 지나면 매년 늘어나는 장서와 더불어 손상되거나 보존이 필요한 장서가 증가하지만, 보존서고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복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통로, 장서 정리실과 검수실, 비품보관용 창고, 직원 휴게실 및 회의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이상적인 공공도서관이란?

최근 개관한 도서관들을 보면, 공공도서관이 책과 휴식이 공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이상 사서의 감시 아래 독서를 강요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 되고,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도서관’ 만들기

김상희

영국 런던대학교 도시계획 박사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사람과 지식의 연결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있다. 디지털 서적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기가 닥치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시설, 다양성의 결합, 취약 계층의 중요한 생명선’과 같은 지역주민 센터 혹은 커뮤니티 허브로서 21세기 도서관의 중요성은 이미 익숙하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모임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의 작고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서로 다른 연령, 성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사로 모이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접근성이 가져오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야말로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지속성을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에는 지역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변화해 온 혁신적인 도서관들이 존재한다. 특히 영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공공도서관 정책을 발전시키고 실행해 왔다. 2011년에는 지방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었다. 공공부문의 재정 감소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공동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더라도 지역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시키는 ‘커뮤니티 도서관’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도서관 세 곳 중 하나는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는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통된 전략을 연구·개발하여 커뮤니티 도서관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도서관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예산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배분하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주민단체, 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성장해야 한다. ‘장소’란 역사적인 시간성을 지니는 공간으로, 특히 도시에서의 장소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기체이다. ‘장소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place making)’라는 접근방식에서 ‘장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place shaping)’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도시 디자인의 학문적 경향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좋은 공공도서관을 위해서는 건축가, 도서관 운영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장소를 만든다는 공통의 목표로 각자의 역할 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도시의 거실’이자 ‘인류 지식의 저장고’로 나아가길!

### 한 형우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학창시절 도서관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시험과 연관된다. 평상시와 다르게 새벽에 일어나 문이 닫힌 도서관 입구에 기다란 줄을 서고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던 장소, 인고의 시간을 견디기 위한 공간이었다. 시험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찾지 않던 곳이 그 시절의 도서관이다.

과거 건축과 학생들의 건축계획 혹은 건축계획각론 교재를 보면, 도서관은 서가와 열람실, 자유 열람실이 변동 가능한 ‘가변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공간이었다. 또한 책상과 책꽂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모듈을 찾아내는 것이 평면계획의 주안점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개가식 열람실이 보편화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생각도 변화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들이 요구되면서 ‘교육문화시설’에서 ‘문화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분류에서 도서관은 여전히 교육연구시설이다.

###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상의 공간

일반적으로 건축가는 작업기간 내내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한다. 첫째, 기존 대지의 맥락을 분석하고 기존의 환경과 새로운 건축물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때 대지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지점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를 투영하여 진행한다.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답는다.

위의 두 가지 관점에서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살펴보자. 먼저 ‘대지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4개 동의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맥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축가는 이를 제약이라기보다 기존의 질서를 변형·재조합하여 익숙함과 함께하는 새로움으로 지역 사회에 더욱 가까이 가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는 어떨까? 흔히 공공도서관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열람공간이 중심이 되어 정숙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런데 기존 다가구주택 벽식 구조의 특성상 독립된 큰 규모의 종합자료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자 기존 다가구주택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을 확장·연결한 복도형 종합자료실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폐쇄적인 방들은 복도형 종합자료실과 교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양하고 친숙한 열람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제약조건을 승화시켜 지역사회 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책-사람’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TV가 중심이 되는 익숙한 거실 풍경에서 만약 책장이 TV를 대신한다면, 아마도 이 거실 속의 삶은 기존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는 새로운 ‘책-사람’, ‘사람-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도시의 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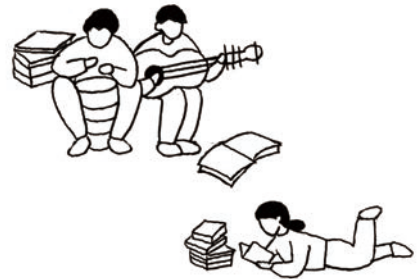
### 시공간을 초월한 지적 여행의 출발점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기를 통해 도서관의 전자책을 대출받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대에 공공도서관은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으려면 도서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그 가능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4층 높이의 서가와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책읽기를 유도한 작은 방들의 결합은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사회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은 역설적으로 도서관 고유의 장소성이 더 강조되는 모습은 아닐까.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검색은 시의성과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연관검색어는 단편적인 사실 확인에 제법 유용하다. 하지만 기존의 참고문헌을 대체할 수는 없다. 즉 지적 자료간의 내밀하고도 고유한 상호연관성을 찾아내기는 힘들고 그것을 표현하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공간인 도서관에서 분류에 의해 정리된 서가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비슷한 생각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시간을 초월하는 그물망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 펼쳐 있는 책에서 희미한 연결고리를 읽어낼 수도 있다. 도서관은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인물들과 만나고 깊은 사색으로 지적인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개개인의 지적인 네트워크를 발견해 나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가상의 세계가 실재를 압도하고 현실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는 시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도시의 거실’이자 고유의 성격이 더욱 강화된 ‘인류 지식의 저장고’로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주요 프로그램

### ● 도서관 주민동아리와 학교간 연계사업

인근 17개 초·중·고교와 반별·동아리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 구산초 | 독서 캠프\_2017.7.24~28일 (5일) / 125명
- 구현초 | 독서 코칭 프로그램\_2017.4~12월 (1·2학기, 주 1일) / 연인원 256명
- 대조초·예일초 | 도서관 이용교육(5·6학년 국어교과 연계)\_ 2017.6~7월 (3일) / 72명
- 구산중·은평중 | 자유학기 교과연계 / 초등독서지도 프로그램 보조교사\_ 2017.6~10월 (월 1회) / 120명
- 영락중 | 초등독서지도 프로그램 보조교사\_ 2017.4~9월 (월 1회) / 연인원 120명
- 예일여중 | 중3 학년말 프로그램(영화·독서·진로)\_ 2017.12.5~7일 (3일) / 720명
- 신도고 | 도서관지킴이 / 도서관 이용교육 / 교실부적응학생 지도\_ 2017.4~12월 (주 4일) / 연인원 1,920명
- 대영학교 | 유치원~초등 중증장애학생 독서지도\_ 2017.7~12월 (주 5일) / 연인원 1,440명

### ● 지역단체와 연계한 ‘도서관 마을장터’

우리 동네 텃밭협동조합\_ 은평도시농부학교, 공동체텃밭, 제철밥상, 파머스마켓

장소 | 도서관 앞 주차장

목표 | 도서관 앞마당에서 절기와 텃밭농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자연과 생태, 상생과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내용 | 철들게 먹고, 놀고, 살아가는 삶 소개하고 나누기

- 제철채소 판매, 생태놀이, 대안생활재 소개, 제철수확물로 만든 슬로우푸드
- 책으로 일구는 도서관텃밭... 자연과 농사, 순환, 계절에 맞는 도서 소개 및 활동

### ● 지역주민이 직접 만드는 ‘도서관 라디오’

매주 토·일요일 문 닫기 10분 전 도서관 라디오 방송

- 청소년 라디오 ‘마침표’ (2016.10~현재 / 월 2회 / 10명)
  - 마을 인터뷰, 무비클럽, 삼순이(순위조사), 사서 레터 등 자체 대본·녹음·편집으로 진행
- 주민 라디오 ‘어울라디오’ (2017.8~현재 / 월 2회 / 7명)
  - 라디오 드라마, 클래식 음악, 신간도서 소개 등

### ● 월별 주제 전시/상영/초청강연

[2017년 프로그램] 2월\_여성 이민경(작가) | 3월\_복지 | 박주민(국회의원) | 4월\_안전 임정재(동화작가) | 5월\_주거 민달팽이(청년주거단체) | 6월\_평화|정육식(군사전문가) | 7월\_교육 광노현(전 서울시교육감) | 8월\_역사 박시백(화백) | 9월\_노동 하종강(성공회대 교수) | 10월\_독서문화 |장강명(작가) | 11월\_생활문화 최규석(화백) | 12월\_인권 홍세화(사회운동가)

## 도서관 이용안내

운영시간

- 평일(화~금)\_9:00~22:00 (미디어자료실은 ~18:00 / 어린이자료실은 ~20:00)  
주말(토·일)\_9:00~18:00

## 후관 일

- 매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포함,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휴관)
- 장서 점검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기타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

## 찾아오는 길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23 (구산동 17-33)

전 화 02-357-0100

지 하 철 6호선 구산역 3번 출구 (구산역에서 도보로 10~12분)

버 스 구산역 예일여고, 구산중학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주차공간** 장애인 1대, 일반 12대 (대중교통 이용 권장)

구산역  
예일여고

간선버스	571, 752, 753, 760
지선버스	7613, 7715, 7720, 7722
광역버스	9701
마을버스	은평04

구산중학교

간선버스 702A, 702B, 751  
지선버스 7022, 8774

